

# 이란 외교관, 허가 받아야 코스트코 갈 수도

## 국무부 외교관 이동 강화 움직임 유엔 외교 성격 재편 가능성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두 손으로 얼굴 감싸진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표, 사진=AFP/뉴스

이런 움직임은 유엔 총회 참석 외교관의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이란,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이들은 뉴욕에서의 이동, 쇼핑, 일상 활동 전반에서 전례 없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이란 외교관들은 뉴욕에서 엄격한 이동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검토되는 안 중 하나는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마다 국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란 외교관들은 오랫동안 이들 매장을 통해 값싼 대량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부를 본국으로 보내왔다. 국무부는 이러한 규제를 다른 외교관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유엔 주재 대사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역시 이번 제약 대상이 될 수 있다.

브라질 대표단도 새로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맹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 당국의 조치를 문제 삼았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조치로, 유엔에 파견된 이란 대표단이 앞으로는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에서 장을 보려면 국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최근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과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한 데 이어 비자 및 외교관 이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무부가 뉴욕 내 외교관 비자 및 접근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어서, 향후 수년간 유엔 외교 무대의 성격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네델란드 사실상 '주 4일 근무제'

## 주당 평균 32.1시간, 여성 노동시장 참여로 변화

유럽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국가는 네델란드로 나타났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네델란드 20~64세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2.1시간으로, 사실상 '주 4일제' 수준이다. 뒤이어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가 평균 34시간 내외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미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9시간으로, 2019년 44.1시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네델란드와 큰 격차를 보인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주당 40~45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네델란드 노동시간 단축 배경

네델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노동시간 체제를 갖추게 된 주요 배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였다. 과거에는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여성들이 파트타임 근로 형태로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수십 년에 걸쳐 세제 혜택과 복지 제도가 '1.5인 소득 모델(한쪽은 풀타임, 다른 한쪽은 파트타임)'을 뒷받침했고, 이는 남녀 모두가 활용하는 보편적 근로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아버지들도 일찍 퇴근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 ■ 단축 근무제와 고용 안정성

짧은 근로시간은 단순히 일-가정 양립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 안정에도 기여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네델란드 실업률은 1991년 7.3%였으나, 2001년에는 2.1%로 급감했다.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2018년 이후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2024년 현재 3.6%에 불과하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2%로 크게 높지 않지만,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그 의미가 다르다. 네델란드의 인구는 1,780만 명인 반면, 미국은 3억4,2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0.6%포인트 차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로 실업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 ■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이탈

특히 미국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격근무 축소 흐름, 승진 기회 감소, 사회적 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며 여성들이 일터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4년 1~6월 사이 20세 이상 여성 21만2,000명이 노동시장을 떠난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은 4만4,000명이 새로 진입했다.

이로 인해 미취학 아동(5세 이하)을 둔 여성(25~44세)의 고용률은 1월 69.7%에서 6월 66.9%로 떨어졌다. 이는 네델란드식 '유연 노동체계'가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에코 치과 에서 건강한 치아로 환한 미소를~



Dr. SUNG HOON LEE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사랑니발치

신경치료

충치치료

가족처럼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함과 풍부한 경험으로  
최상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예약 필수 진료시간: 월 ~ 금: 9am ~ 6pm 셋째 토요일: 9am ~ 1pm 수: Closed



## 에코 치과

• 플러튼점 714) 879-0142 • 아테시아점 562) 924-3334  
221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17334 Pioneer Blvd. Artesia, CA 90701